

지역 5개대 '대학기관평가인증' 획득

조선대·광주대·송원대·동신대·목포대 등 전국 47개 대학 30개 세부지표 점검 평가...5년간 정부 재정 지원사업 참여

조선대·광주대·동신대·송원대를 비롯한 전국 47개 대학이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본요건을 갖췄다고 평가돼 '대학기관평가인증'을 획득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병설 한국대학평가원은 2022년 하반기 대학기관평가인증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광주지역에서는 조선대, 광주대, 송원대 전남지역에서는 동신대, 목포대 등 모두 5개 대학이 인증을 받았다.

이번에 평가를 신청한 대학은 모두 50개교다. 47개 학교는 인증을 받았고, 2개 학교는 조건부 인증을 받았다. 1개교는 인증받지 못했다.

인증은 5년간, 조건부 인증은 2년간 유효하다. 이들 대학은 오는 2027년까지 각종 정부 재정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대학기관평가인증은 대학이 교육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대학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취

지도 반영돼 있다.

▲대학이념 및 경영 ▲교육과정 ▲교원·직원 ▲학생지원 및 시설 ▲성과 및 사회적 책무 등 5개 영역에서 재정확보, 전공·교양 교육과정, 학사관리, 교원 확보, 교육성과 등 30개 세부지표(평가준거)를 점검해 평가한다.

인증 받은 대학은 5개 평가영역을 모두 충족해 기본적 교육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된 곳이다.

정부가 그간 재정지원 기준으로 활용했던 대학 기본역량진단을 폐지하면서 2025학년도부터는 대교협·전문대교협의 평가인증을 받거나 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지원을 통과한 대학이 재정지원 대상 대학이 된다. /윤영기 기자 penfoot@



동신대 '장교선발시험 100% 합격 전통' 화제

군사학과 1~5기 전체 졸업생 임관

동신대학교 군사학과가 장교선발시험 합격률 100%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어 화제다.

2일 동신대에 따르면 군사학과는 첫 졸업생을 배출한 2018년부터 올해 2022년 2월까지 1~5기 졸업생 142명 모두가 100% 장교로 임관했다.

선배들의 이 같은 전통을 이어받아 후배들도 100% 합격률을 기록하고 있다. 4학년(6기) 30명, 3학년(7기) 26명, 2학년(8기) 33명 전원이 이미 육군·해군·공군·해병대 장교선발시험에 합격했다. 1학년도 36명 중 19명이 1년이 채 안 된 현재, 선발 시험에 합격해 졸업과 동시에 장교로 임관하게 된다. 나머지 17명도 100% 합격률의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 졸업 전 장교선발시험 합격을 목표로 뛰고 있다.

군 장학생 선발 시험에 합격하면 4년간 대학 등록금은 물론 추가 가산금을 지원받고 졸업과 동시

에 7급 공무원 수준의 소위로 임관하게 된다.

동신대 군사학과는 높은 합격률을 유지하기 위해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입학 과 동시에 수업과 병행, 체력단련 및 장교선발시험 준비를 시작하고 있다. 또 태권도 1단 이상, 체력 1등급 이상, 토익·토플 650-550점 이상, 컴퓨터활용능력 자격 취득을 의무화한 졸업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졸업생들은 육군 장교 수석 임관(대통령상), 해병대 장교 수석 임관(국방부장관상), 육군 참모총장상, 육군 기계화학교 수석 임관(보병학교장상) 등의 성과를 거두며 동신대 군사학과 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

류대용 동신대 군사학과장은 "우수학생 선발과 다양한 장학혜택, 최우수 교수진 확보, 최적의 시설지원과 혁신적인 교육 프로그램 도입 등을 통해 재학생 100% 합격이라는 전통을 지켜나가며 전국 최고의 장교 육성기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교권·학생인권 상호 존중되는 학교문화 조성"

전남도교육청, 교육공동체 토론회 교육활동보호 협력 방안 모색

전남도교육청이 '전남교육공동체 소통 토론회'를 갖고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인식 공유와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전남도교육청은 지난 27일 전남여성가족재단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전남의 학생·학부모·교사·인권구제 담당자 등은 교육활동보호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지난 27일 열린 전남교육공동체 소통 토론회에서 김대중 교육감이 행사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전남도교육청 제공>

이 토론회는 강일국 목포대학교 교육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황구근 여수웅천중 교감, 박성근 전교조전남지부 정책실장, 임정현 광양제철고 학생, 김은화 목포옥암중 학부모, 허창영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인권구제담당 주무관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박성근 실장은 "교육부의 대응 방안이 여전히 교권과 학생인권을 대립적으로 보는 관점이 남아 있다"며 "교권과 학생인권이 상호 존중되는 교육공동체 구현을 위한 체계적인 방안을 논의할 때"라고 말했다.

임정현 학생은 "인권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학생인권과 교권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지 못했다. 이런 점이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인권교육의 부족을 지적했다.

허창영 주무관은 "현장의 교육활동보호 상황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실질적 논의가 좀 더 필요하다"며 "학생인권과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생활교육 지원체계 현실화 방안이 논의되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강일국 교수는 "교권과 학생인권을 둘 다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며 "교육활동보호 예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학생, 학부모, 교원에게 안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전남도교육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으며 현장과 온라인을 통한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장성하이텍고 채광선 교사는 "교육활동보호가

무엇을 위한 것인가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면서 "안전한 환경에서 학교생활을 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전구슬 교육연구사는 토론회 시작 전 교육부에서 같은 날 발표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방안'을 안내했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인사말을 통해 "학습권과 교권을 상호보완 관계에 있으며 이 둘이 조화로운 학교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교육공동체 모두가 교육활동보호 인식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해 나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송원대 철도운전경영학과 4명 코레일 공채 합격

송원대학교(총장 최수태), 철도운전경영학과(학과장 윤경철)에 재학 중인 이윤근, 김태한, 이성근, 이지용 학생이 하반기 코레일 공채시험 철도장비운전분야에 최종 합격하며, 상반기 6명과 함께 올해만 10명이 공채에 합격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코레일 철도장비운전분야는 20명 모집에

163명이 응시하여 8.15: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철도장비운전분야에 합격한 이윤근(4년)씨는 "갈수록 어려워지는 공기업 취업의 문턱을 넘게 되어 너무 기쁘고, 자식 잘 되기를 바라시며 지금까지 고생하신 부모님과 오늘의 기쁨이 있기까지 열정으로 지도해 주신 교수님들께 감사드리고,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더 열심히 하여 한국

철도발전의 주역이 되겠다"고 말했다.

또한 철도운전경영학과 이정환(3년)씨는 SK넥실리스 하반기 공채시험에 최종 합격 등 송원대학교가 철도 특성화 대학으로 우뚝서고 있다.

26년 전통의 철도운전경영학과는 한국철도공사 및 관련기관의 경력이 있는 우수한 교수진의 노력으로 올 한해 10명이 코레일에 합격했고, 350여 명이 포스코, 서울교통공사, 광주도시철도공사, 인천교통공사 등에 기관사, 관제사 등으로 근무하고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김윤희 광주대 다문화 사회전문가 융합전공 교수(왼쪽에서 두 번째)가 최근 배재대학교에서 열린 다문화 사회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대, 배재대·호남대와 다문화사회 전문가 양성 협약

광주대학교(총장 김동진)는 최근 배재대학교·호남대학교와 다문화사회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배재대학교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은 김윤희 광주대 다문화 사회전문가 융합전공 교수와 박석준 배재대 국어국문한국어교육과 교수, 강현주 호남대 글로벌 다문화융합전공 교수 등이 참석했다.

각 대학은 광주·전남지역과 충청 지역의 다문화 사회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다양한 교육과정 및 비교과 프로그램을 공동 진행할 계획이다. 또 교육 콘텐츠 공유와 학생·교직원 교류, 다문화 분야

공동 연구 및 학술회의 운영 등을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앞서 진행된 지역 네트워크 운영위원회에서는 이수진 대전 중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팀장, 전현숙 국제과학기술훈수사단 간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대학과 다문화 기관이 협업해 진행되는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윤희 교수는 "각 대학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공유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며 "다문화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의료 과소비!

일부의 무분별한 의료 행위는 모두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바람직한 의료이용! 실손의료보험 수호의 시작입니다!